



## 우 리 들

에브게니·자마틴 (Ebrehüi Zamsitnh)

徐 光 云 譯

(韓國SF作家클럽 會長)

지금으로부터 1천년전, 2백년전쟁에서 승리한 도시국가 <單一國>이 이상사회를 이룩하고 있었다.

<단일국>은 혼돈에 휩싸인 자연계와 야만스럽고 무질서한 인간사회와 결별하고 <녹색벽>으로 둘러싸인 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이상사회였다.

그곳은 내가 아니라 <우리들>인 전체주의 사회였다. 거기에서 사는 <구성원>들은 유리실크의 회청색 제복을 입고 숫자와 문자로 된 국민번호가 적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이나 思考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時間律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수백만 주민이 마치 한사람처럼 행동했다. 아직은 하루에 두 번 16~17시, 21~22시까지의 두 시간은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멀지않은 장래에 그마저 <우리들>을 위해서 통합될 전망이다.

섹스와 생식도 사랑이라는 고대의 불합리한 습관에서 떠나 바야흐로 性規制局이 정하는 상대와 섹스 데이 예정표 및 핑크 쿠폰에 따라서 진행되며 출산은 養兒業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 되도록 짜여 있었다.

<單一國>은 한사람의 <恩人>을 독재자로 모시는 <수호자>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생활은 전생애 46시를 내내 <경호인>의 감시아래 놓여 있다.

자유라는 야만상태를 지양하고 예부터 인간고유의 본질인 비자유로운 이상사회에 접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숫자는 적으나 반역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한 무리들은 은인의 처형기계에 의해서 말살되고 있다.

단일국은 현재 건조중이며 멀지않아 완성될 <인테그럴 우주선>을 타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딴 행성으로 출발하려는 참이다. 아직도 자유라는 야만상태에 놓여있는 행성을 理性의 은총이 깃든 울법으로 다스리려는 것이다.

수학자 D·503 호는 그 우주선의 제작담당관이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불가사의한 여성 I·330호와 함께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고대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의 의상을 은몸에 걸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것은 이틀 안에 守護局에 신고해야 하는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수학자 D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요망스럽고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강렬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D는 그녀를 지정한 핑크 쿠폰을 받자 할레벌떡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또다시 놀랄만한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는 옛날식 드레스를 입고 독기에 찬 액체를 마시며 가느다란 종이로 만든 고대의 뿔감을 빨아들이고선 연기를 내뿜고 있지 않는가.

뿐만아. 그 액체를 입 읍김으로 마시게 된 D는 아직까지 꺾어보지 못했던 황홀한 감정에 취해버렸다. 섹스의 상대로 정해진 O·90호가 있음에도 그는 I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恩人에게 충성을 맹세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와 부조리한 것에 강하게 말려 들어가는 자기의 갈등을 의식하게 된다. D는 마침내 무서운 <魂>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원하는대로 I와 만나질 못하는 그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O는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고대관이나 그녀의 집으로 I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면서 탈선행동을 저지른다.

한편으로 O-90호는 D가 다른 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알자 그녀 또한 <사랑>의 충동을 못이겨 그를 쫓게 된다. 마침내 그녀는 恩人の 처형기계에 의해서 말살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그의 아이를 낳겠다고 우긴다.

늘 I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를 추구하고 있는 D는 그를 뒤따르는 그림자와 그녀의 주변에 출몰하는 남자들의 모습에 고민한다. 그녀의 수수께끼같은 행동에 머리가 헛갈린 그는 진상을 털어놓도록 그녀에게 애원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恩人을 선거하는 <만장일치 데이>까지 기다리면 모두 밝혀지게 된다고 그녀는 꿈무늬를 봤다. 이는 투표일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당일 D도 찬성표를 던진 압도적 다수에 대해서 I를 포함한 수천명이 반대舉手를 하는 것이 목격됐다. 혼란이 빚어진 회장의 군중

속에서 D는 수호자에 쫓기는 그녀를 구해냈다.

그러나 I는 D를 <녹색벽> 밖으로 끌어냈다. 거기에는 존재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기 어려운 자연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2백년전쟁 후 단일국에서 빠져나온 한 줌의 인간들이며 <메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우주선을 탈취하는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설득된 그는 그 계획에 가담하려고 <녹색벽>안으로 돌아간다.

우주선이 완성된 날, 수호국은 X線照射에 의하여 상상력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대외과 수술을 완성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수술을 받도록 권고했다.

D는 거기서 빠져나와 계획대로 우주선을 발진시켰으나 계획이 당국에 감지되어 중도에서 불들려 恩人 앞으로 끌려왔다.

恩人は 반역자들이 D를 필요로 한 것은 그가 우주선 제조담당관이었기 때문일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리하여 대외과수술을 받은 D-503호는 동지들을 배신해버린다. I-330호는 가스실의 고문을 이겨냈으나 마침내는 처형기계의 희생자가 되고만다.

이미 온갖 인간적 감정을 잃은 D는 이성의 승리를 믿으며 처형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 ■ 작가와 작품 ■

원제는 Mb1. 에브게니·자마틴(1884~1937)은 소련의 작가.造船기사로 혁명후 소련문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작가의 한 사람이다.

SF쪽의 흥미로운 작품으로서 <섬사람들>(1917년), <마마이>(20년), <동굴>(20년) 등 전시공산주의하의 도시의 황폐, 대중의 빈곤, 인텔리의 파멸등을 원시시대 또는 中世

의 역행으로 풍자적으로 그렸다.

<우리들>(1924년)이 국외에서 英譯 출판되자 당국의 압력이 한층 강해져 작가동맹을 탈퇴하고 프랑스로 망명, 파리에서 객사했다.

이 작품이 바로 오웰의 <1984년>, 헉슬리의 <훌륭한 新世界>에 큰 영향을 주었다.

~~~~~